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계 열	인문계열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흑색) 볼펜**으로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인적사항 및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가) 나는 <레 미제라블> 생각을 했다. <레 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 시가전 장면에서 바리케이드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새벽이 밝아 오면 곧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네 명만은 무사히 살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들 내가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는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모두 자신이 죽겠다고, 기왕 죽을 거면 훌륭한 죽음을 맞고 싶다고 말한다. 모두 내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 나가야 한다고, 당신은 아내가 누이가 아이가 있지 않느냐고 우긴다. 그들은 인류를 위해서 한 개인에 불과한 자신의 목숨을 순수한 선물로 바치려 한다. (중략) <레 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포기하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인류에 대한 믿음에 가까이 가 볼 수 있었다.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현실에 매달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레 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었다. ‘레 미제라블’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위고는 매춘부, 억울한 도둑, 굶주린 하층민 계급에 대해서만 말하려 했던가? 공원에 며칠째 굶주린 어린 두 형제가 있다. 그곳에 자기 삶은 올바르다는 확신에 가득 찬 중산층 시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다. 아들 손에는 빵이 있다. 배가 부른 아들은 호수의 백조들에게 빵을 던져 준다. 그리고 이 부자가 사라지자 형은 동생을 위해 호수에서 물에 젖은 빵을 건져 내 두 조각으로 나누고 큰 것은 동생에게 주고 작은 것은 자기가 먹는다. 이 부분 바로 앞에 위고가 쓴 말들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평화롭고 무자비하게 만족한 사람들,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이란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을 찬미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런데 **장 발장**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것도 단 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그건 억울한 옥살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건 오로지 양심과 관련된 이야기다. 코앞에 다가온 행복조차 오로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포기할 때 그는 “나는 레 미제라블이에요!”라고 말한다. **여기서 레 미제라블의 의미가 바뀌어 버린다.** 그들은 단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중략) 빵 한 쪽을 나눠 더 큰 반쪽을 동생에게 주는 형, 비참함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장 발장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다. 나는 레 미제라블이에요! 이 말은 위대한 인간 선언인 것이다.

(나) [전체 줄거리] 종술은 대충로 떠돌며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일 없이 낚시나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 종술에게 최 사장이 이곡리 판금 저수지 양어장의 감시를 맡긴다. (중략) 완장을 찬 종술은 도시에서와 낚시질을 하던 사람들에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잡던 동창 부자를 폭행하기도 한다. 완장의 힘에 빠진 종술은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을 두르고 활보한다. (중략)

본문은 최 사장과 익삼이 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을 맡을 것을 설득하는 부분이다.

“사람이 운수 불길해서 잠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시뻘 보들 마시오! 에이 여보쇼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개! 내가 게우 오만 원짜리 꼴머심 푼수배끼 안 되는 것 같소? 나 임종술이, 이래 뵈야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장 들어 본 사람이요!” (중략)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하는 집에 비단잉어에다 월급 봉투를 암낭혀서(‘물건 따위를 호송해서’의 뜻) 한목에 같이 낚여 올리겠네. 삽자루 들고 땅따기허는 배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허면서…….”

“완장요!”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였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였다.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중략)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 다니던 시절, 도로 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 오던 시비와 단속들, (중략)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였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술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중략)

“뵈이여야? 완장이여?”

“예, 여그 요짜 왼팔에다 감시원 완장을 처억 허니 돌르고 순시를 돌기로 했구만요. 그냥 맨몸땡이로 단속에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시뻐 보고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까요.”

그제서야 종술은 자라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메기주둥이를 히죽거리 가며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매 시상에나, 니가 완장을 다 둘러야?”

“그깟 놈의 것, 쇠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디요, 뭐. (중략) 엄니는 동네서 사람대접 조개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영 못마땅허요?”

(다)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유아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장난감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들을 ‘갖게’ 되며, 좀 더 지나면 내생(來生, ‘죽은 뒤의 생애’의 뜻)이라고 할 만한 것, 즉 매장지, 생명 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에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영웅이란 자신이 가진 것, 즉 토지, 가족,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敢行)한다. (중략)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중략)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중략)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중략)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지적 창조적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1. 제시문 (가)에서 밑줄 친 ‘여기서 레 미제라블의 의미가 바뀌어 버린다.’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 ‘바리케이드 안의 사람들’과 ‘장 발달’, 제시문 (나) ‘임종술’의 행위를 각각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임종술’의 행위를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Tel 02-3408-3114 [www.sejong.ac.kr](http://www.sejong.ac.kr)

입학안내 Tel 02-3408-3456, 4455 Fax 02-3408-3556 [ipsi.sejong.ac.kr](http://ipsi.sejong.ac.kr)